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 9월 17~18일 개최

‘DDD 에너지 전환(분산·직류·디지털 AI)’ 주제로 석학, 기업, 투자자 참여 노벨상 수상자 기조 강연과 AI, 비즈니스, RE100 등 심도 있는 세션 진행

전라남도 나주시가 에너지와 인공지능(AI)의 융합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개최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준비한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이하 포럼)’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표방하는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이 포럼을 열어왔으며 세계적 석학과 글로벌 기업,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DDD 에너지 전환(분산, 직류, 디지털 AI)’으로 정부의 에너지 및 AI 정책 기조와 맞물려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과 미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17일 오전 10시 개막식에서는 2010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그

래빈 연구 권위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기조 연사로 나서 차세대 신소재의 AI 기반 설계와 에너지 산업 혁신을 전망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열리는 세션 1 ‘AI for Energy’에서는 신정규 래블업 대표가 기조 강연을 맡고 김성철 한전KDN 원장, 이효섭 인코어테크놀로지스 부사장, 강명구 I-DEA 사무총장, 손경중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 마기평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수석 등이 참여해 전력 거래 최적화, 차세대 전력망 운영, 글로벌 규제 대응,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날인 18일 오전 10시에는 세션 2 ‘Business & Investment’가 열린다.

최종용 인코어테크놀로지스 대표와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이 기업과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브라이언 구, 아민 바드르 엘 단, 제프 왕, 스티브 웨슬러 등 글로벌 투자 리더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실리콘밸리 최신 동향과 한미 협력 전략을 공유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세션 3 ‘Energy for AI’가 이어진다.

토마스 헬러 스탠퍼드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통해 COP30을 앞둔 탄소관리 전략을 발표하고 김용학 한전 에너지기술연구소장, 진우삼 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김유신 전남에너지산업협회장, 크리스토퍼 데스마리스 슈나이더일렉트릭 디렉터 등이 참여해 전력 시스템, 에너지 및 AI 융합, RE100 산업단지, 공동체 에너지 전환을 논의한다.

포럼은 학계와 산업계를 넘어 시민과도 소통한다.

17일 저녁 6시에는 구독자 270만 명을 보유한 인기 과학 유튜브 채널 ‘과학을 보다’가 시민특강을 열어 “인류는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전기가 끊기면 부르즈 할리파가 무너지는 이유” 등 흥미로운 주제로 700여 명의 시민, 학생과 만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베트남 다낭시와 전남에너지산업협회 간 협약을 체결하고 시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교류와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에너지와 AI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직류, 분산, 디지털 AI를 중심으로 나주가 만들어가는 에너지의 미래를 조망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과 관계자는 포럼 누리집 www.ngef.or.kr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나주/이명열 기자



15일 HD현대삼호 VIP홀보관에서 김재을 대표(왼쪽부터), LG CNS 현신균 대표, HD현대로보틱스 김완수 대표가 ‘안전한 공정 운영 및 효율화를 위한 휴머노이드 및 물류자동화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삼호, 휴머노이드·자동화로 ‘미래형 조선소’ 구축 속도 LG CNS·HD현대로보틱스와 기술개발 MOU

HD현대삼호(대표 김재을)가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과 물류 자동화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조선소 구축에 속도를 낸다.

HD현대삼호는 15일 회사 VIP홀보관에서 HD현대삼호 김재을 대표, LG CNS 현신균 대표, HD현대로보틱스 김완수 대표를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공정 운영 및 효율화를 위한 휴머노이드 및 물류자동화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용접 및 측정·성형·관제 등 다양한 생산 활동에 적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개발 ▲ 자율이동로봇(Autonomous Mobile Robot) 개발을 통한 조선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HD현대삼호는 제조 데이터 확보와 현장 인프라 조성, LG CNS는 조선산업용 AI 및 데이터 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맡고, HD현대로보틱스는 공정별 특화 AI 모션 제어 기술을 개발·제공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로봇, 시뮬레이션, 용접 등 다양한 제조 기술을 개발·지원한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자동화 설비 및 협동로봇의 한계를 넘어 복잡한 용접·조립·의장 및 검수 공정

의 자동화를 실현함으로써,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생산성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삼호는 2022년 자동화혁신센터 출범 이후 협동로봇과 수공전체 청소로봇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고위험작업 대체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미래 조선소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LG CNS는 초거대 언어모델을 활용한 통합관리시스템과 기반 인프라 구축 등 피지컬 AI 구현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HD현대로보틱스는 조선 현장에서 검증된 로봇 기반 솔루션과 최적 모션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LG CNS 현신균 대표는 “HD현대삼호, HD현대로보틱스와 협력해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AI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현대로보틱스 김완수 대표는 “금번 협력을 통해 조선 산업 현장의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하고, 산업용 AI 로봇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다.

HD현대삼호 김재을 대표는 “AI와 로봇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를 통해 안전과 품질,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미래 조선소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8월 광주·전남 무역수지 13억 달러 흑자... 수출 광주↑ 전남↓

광주세관 8월 수출입 동향... 광주 미국 수출 5.9% 감소

지난 8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1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8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50억9000만 달러, 수입은

6.1% 감소한 37억9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3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8월 말 현재 누계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한 389억3100만 달러, 수입은 9.0% 감소한 296억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92억

8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한 14억 달러, 수입은 17.5% 증가한 7억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9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출의 경우 주요 교역국인 미국이 5.9% 감소했으며 중국은 18.4% 증가했다.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82.7%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는 2.7%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한 36억9000만 달러, 수입은 10.3% 감소한 30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18.8% 감소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미국은 48.1% 증가했다. 품목별로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은 전년 동월 대비 58.8% 증가했으나 석유제품(2.8%), 화공품(11.3%), 수송장비(5.5%), 철강제품(12.6%) 등은 감소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가 잠재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월 현재 골목형상점가 총 480곳을 지정, 전국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083곳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체 상점가 312곳(서울 137, 경기 135, 인천 40)보다 많은 수치로, 광주시의 골목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월 5개 자치구·유관기관 등 12개 기관·단체와 ‘골목형상점

광주시, 골목형상점가 480곳... 전국 최대 두달새 2배 늘어... 골목상권 활성화 총력

소비촉진·매출증대 등 소상공인 실질적 경쟁력 강화 기대

가 광주 전역 확대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점가 확대를 추진했다. 이후 두 달 만에 261곳을 새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원을 위해 각 자치구에 현장 지원단을 5~10명씩 배치했다. 이들은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까지 밀착 지원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이 경감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도 급증하고 있다. 9월 현재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만 1798곳으로, 두달 새 67%(6월말 1만3025곳) 늘어났다.

온누리상품권은 10% 선할인뿐만 아니라 환급행사로 10%, 특별재난지역인 복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은 추가 10%를 환급받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 증가 등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 활성화 지원책도 강화됐다. 이달부터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이 기존 7%에서 13%로 확대 적용되면서 개인당 월 최대 6만5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종팔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